

광주 자원봉사자 40만명 돌파

4명 중 1명 꼴 전국 최고... 3년새 3배 이상 증가

하계U대회·세계수영선수권 성공개최 동력 기대

광주시의 자원봉사자가 40만명을 돌파했다. 시민 40만명이 자원봉사자 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광주시민 중 정부의 1365 국가인증시스템(나눔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40만명으로, 전체 시민 149만여명의 27%에 이른다.

지난 2010년 6월 12만6261명에서 2011년 12월 19만4540명, 2012년 12월 32만 5929명 등으로 3년여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인 18%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광주에 이어 2위를 기록한 부산의 자원봉사자도 20%에 불과하다.

자원봉사자의 실제 봉사활동 참여비율도 단연 광주가 1위다. 광주시는 9만 2645명이 참여해 6.3%의 참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평균은 4.4%에 불과

하다.

이처럼 광주시의 자원봉사자 등록·참가 비율이 높은 것은 민선 5기 들어 JCI와 태대대회와 UNESCO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회의, 2013년 세계한상대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연이어 유치·개최하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시는 단순한 ‘웃자 채우기식’ 자원봉사자 모집 방식에서 벗어나 국제 대회 성공의 열쇠인 게임 메이커(Game Maker) 육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게임 메이커는 대회 조직위와 선수, 관람객 외의 자원봉사자를 일컫는 말로, 지난해 열린 런던올림픽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시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자원봉사자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지역 내 23개 대학과 30여개 자원봉사센터에서 기본·직무·심화·사이버·현장 교육 등 5단계 프로그램을 갖춘 자원봉사자 교육을 운영중이며, 특히 외국어 자원봉사

자 육성 프로그램인 외국어 스쿨을 개설해 자원봉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외국어 스쿨에서는 18세 청소년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직업을 불문하고 열공중이다.

자원봉사학교 등에서 수준높은 봉사자가 다수 배출되다 보니 각종 국제대회의 참여 경쟁도 치열하다.

당장 오는 2015년 열리는 광주U대회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도 자원봉사학교에서 단계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U대회 조직위에서 2014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원봉사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U대회 홈페이지(www.gwangju2015.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광주 시민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도 남녀노소 없이 단체 헌혈에 참여하는 등 타인을 돕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민주·인권·평화의 피가 흐르는 선진시민”이라며 “현재도 광주는 헌혈 등 자원봉사 1등의 도시이며, 자원봉사자 등록률도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제22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 2013年11月18日 福岡県

